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동화사 창건주 위엄 표현해내”

극달화상 진영과 the Composition by Mondrian

동화사사적기(桐華寺史蹟記)에 의하면, 신라 소지왕(昭知王, ? - 500) 15년(493)에 극달 존속(尊宿)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師)라고 부르다가 흥덕왕(興德王) 7년(832) 심지(心地) 왕사(王師)가 중창할 때 오동(梧桐)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 피었다고 하여 ‘오동나무꽃질’이라고 이름을 고친 절이 바로 동화사이다.



공산개조 극달화상진영

그런데 극달화상의 창건설은 사실 일반 사서(史書)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1931년 김정래 선생이 지은 조선불교 선교양종 제일 수사찰 대본산 경북 달성군 공산면 동화사적비(朝鮮佛教傳教宗第一首寺創大本山慶北達城郡公山面桐華寺蹟碑)에 위의 사실(史實)이 나올 따름이다. 그럼에도 갖바위 부처님을 관리하는 선본사(禪本寺)와 북지장사(北地藏寺)도 극달 화상께서 창건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형형한 눈빛 굳은 입술 ‘위엄’ 세 폭 병풍 ‘무자화두’ 나타내

동화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는 원래 조사전에 모셔져있던 공산개조극달화상지진영(公山開祖極達和尚之眞影)이라는 해제(解題)가 붙은 111.7cm x 77.2cm의 영정이 걸려있다. 행화리는 명칭에 걸맞는 극달존자의 형형(熒熒)한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 큰 귀를 지녔다. 균형 잡힌 얼굴, 파르르니 작은 수염과 잘갠 잔디발 같은 머리, 회색의 장삼과 붉은 가사를 입고 있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침착하게 앉아계신 모습을 보면 과연 경상도를 대표하는 대찰의 창건주답다.

는 없다. 그러나, 17·18세기에 경상도 지역의 상당수의 불화를 제작했던 의군(義均)스님이나 그 제자들 중 한 분이 그랬음에 틀림없다. 그럼 왜 이 영정이 그토록 특별한가? 그 것은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20세기 미술과 건축, 그래픽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화가 중 한 사람인 몬드리안 덕택이다.

그가 초창(初創)한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라고 부른 비구상적인 형태인 ‘구성(構成)’이라고 불리는 컴퍼지션 시리즈는 가로와 세로의 검은 선의 격자(grid)와 삼원색(三原色)을 사용한 것들이 많다. 그는 그를 대표한 작품의 색채언어를 가장 기본적인 직각과 직선, 남성성을 보이는 수직선, 여성성을 상징하는 수평선으로 표현했다.

이 정도의 해설이면 불자(佛者)들은 왜 이 영정이 그토록 특별한 지 바로 깨달았을 것이다. 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디자인과 색채감각을 이미 200 여년 전의 우리 승려화가인 이름 없는 어느 화승(畫僧)이 이미 지니고 표현했던 것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재미있는 부분은 존자(尊者)의 뒤쪽에 펼쳐져 있는 병풍이다. 흰색 바탕에 세 폭의 병풍이 보이는데, 가장 좌측은 중단을 흰 여백에, 상단은 중간까지 붉은 비단으로 배접이 되어 있고, 하단은 파란색 비단으로 배접이 되어있다.

이 영정은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보현보살 10대 서원 노랫말로 펼쳐

박범훈 작곡·지휘 보현행원승 공연 4월 29일 ‘평화기원 전통음악회’ 92년 교성곡 초연 20년만에 무대에



조계종 봉축위는 4월 29일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연다. 사진은 지휘자 박범훈 씨의 2006년 공연 모습이다.

선재동자는 무성정각을 이루기로 발심하고 구도의 길에 오른다. 53선지식을 찾아 범을 물었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선재동자는 보현행원을 듣고 입법계(入法界)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

4월 29일 오후 3시·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보현행원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무대다. 봉축위원회, 명법사, 국립극장이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작곡가 박범훈(경와대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씨가 지휘를 맡았고 예술감독에 손진책, 연출 정호봉, 안무는 구수호 씨가 맡았다. 공연 1부에서는 유문식 씨의 지휘로 ‘예불’ ‘허공을 삼키시니’ ‘온 겨레의 노래’ ‘부처님 오신 날’이 연주가 되고 2부에서는 박범훈 씨의 지휘로 ‘보현행원승’이 연주된다.

보현행원승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바탕으로 광덕스님이 작사하고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곡이다. 국악과 합창, 독창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성곡으로 1992년 초연 이래 불교음악의 발전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20년 전 보현행원승을 작곡했던 박범훈 씨가 총괄 지휘를 맡아 당시의 영광을 재현한다. 도신스님, 김성녀, 박애리 김용우, 채창순 씨 등이 출연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

국악국악관현악단, 명법사합창단, 불광사합창단, 모스트보이스합창단 등 300여 명의 출연진이 장엄한 무대를 펼친다.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 씨는 “20여년 전 유학을 다녀온 뒤, 한 사람의 합창을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다. 한복을 입은 보살님들이 찬불가를 부르는데 가사는 불교를 담았는데 곡은 교회음악이었다. 이후 불광사 광덕 스님의 부탁을 받고 보현행원승을 작곡하게 되었다. 이후 3회정도 공연한 기억이 있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이후 박 씨는 한아세안 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총장,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위원, 오케스트라 아시아 상임지

휘자를 거쳐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양한 직책과 직무를 맡아왔다. 박 씨는 “지휘봉을 오랜만에 들어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악보가 자꾸만 결제서류로 보인다. 하지만 20년 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년전 음성공양을 펼쳤던 국악인 겸 배우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씨의 출연도 눈길을 끈다. 김 씨는 “시아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시집오자마자 신행활동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이를 일상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범훈 선생님을 만나 찬불가 운동을 함께하며 수행하는 마

음으로 임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음성공양을 펼칠 수 있게 돼 너무나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보현행원승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대작을 작곡해주시는 박범훈 선생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불교음악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기쁘다”며 “초연 20주년을 맞아 봉축 음악회를 마련하게 된 만큼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계에서는 불교 음악을 발전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02)2280-4114 정혜숙 기자

“진리의 말씀 선율에 담았다”

니르바나필하모니 ‘칸타타 담마파다 3’ 4월 29일 저녁 7시30분 KBS출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범정스님 ‘진리의 말씀-범구경’을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하는 특별한 음악무대가 마련된다. 불교계 유일의 오케스트라 니르바나필하모니(단장 강형진)이 4월 29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음악회 ‘칸타타 담마파다 3’을 개최한다.

니르바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3년간 수정 보완한 내용을 공연에 담았다. 전통적인 한국음악의 정수를 서양 관현악에 잘 접목시켜 유려한 간주곡 형태의 관현악을 위한 곡을 삽입했다”며 “이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불교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니르바나필하모니는 4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봉축기념음악회를 펼쳤다.

지난 2010년 초연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2012 ‘칸타타 담마파다’는 오케스트라 60여명, 중앙승가대 스님 40여명, 연합합창단 80여명, 사찰합창단 300여명 등이 장엄한 무대를 펼친다. 3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3년간의 노하우를 녹여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

‘칸타타 담마파다’는 범정 스님의 ‘진리의 말씀-범구경’을 바탕으로 중앙승가대 교수 분가 스님이 해설하고 이호신 화백의 ‘천불만다라’를 표현한 공연이다. 2010년 초연 이래 세 번째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관무용단의 무용이 함께하며, 어린 이 판소리에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무대

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서곡 ‘님맞이’를 시작으로 ‘눈뜨는 마음’, ‘구름 가듯 달 가듯’, ‘진리의 말씀’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자비의 나라’, ‘부처님 내게 오셨네’, ‘님이 오신날’ 등을 사찰연합합창단, 오케스트라, 전문성악연합합창단 등이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음악감독에 김의명씨, 단장에 김형진 씨, 작곡에 김대성 씨, 지휘에

원영석 씨 등이 참여한다. 음악감독 김의명 씨는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저지심포니 악장, 뉴올리언즈 필하모니, KBS교향악단 악장 등을 역임했다. 작곡가 김대성씨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 1992년 계간지 ‘한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다. 2002년 KBS 국악작곡 대상, 2007년 문화관광부 실용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니르바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서양의 언어로 동양의 정신을 펼쳐나가는 니르바나는 해마다 불교음악을 창작해 발표해 왔다. 불교와 한국의 전통이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 부처님오신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연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 KBS1 채널 ‘KBS중계식’에서 오후 2시 녹화방송된다. 티켓은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당뇨가 있으십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부인병이 걱정되시나요?



‘홍삼좋은것은 아는데, 체질에 안맞아서..’ ‘산삼 좋은 것은 아는데, 비싸고 산삼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한약(보약)을 지어먹자니 중국산 약재들이라..’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약명으로 전호(前胡)라 하여 약재로 쓰입니다. 미나리과의 약초라 체질에 상관 없이 효능을 발휘하고 최근 당뇨병을 근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삼의 뿌리에서 산삼보다 높은 사포닌이 검출되었으며 항암작용, 암, 당뇨 같은 만성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해 졌을 때 뿌리를 달여?복용하면 기력을 회복하며 혈당을 현저히 내리며 또 항암 작용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연삼에는 자궁 기능 조절 및 진정, 진통, 항균, 설사 및 비타민 E 결핍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노다케닌(nodakenin)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염, 관절염, 혈액순환, 빈혈, 각종 부인병, 생리불순, 두통에도 특효입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 시키는 효과가 있어 신경쇠약 치료약으로도 쓸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인삼이나 산삼을 훨씬 능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귀한 약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성분으로 암을 유발하고 각종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피부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수많은 약리작용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 증진 중단과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혈액이 맑지 못한 당뇨병을 근치합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 자란 연삼(軟蔘)을 직접 캐고 말리며 정성 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2F 담당: 김중관 051)741-3312, 010-8440-109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438-427755 김태우(010-4759-5152)

국내산 100% 연삼액 30개입 14만원 → 12만원 60개입 28만원 → 23만원

양평 행운사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 하얏고 만물이 성장하는 봄을 맞아 아미타불도량을 중건 중수하면서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와 아낌 없는 도움에 석공명장님들의 손을 빌어 석불부처님을 여러분 모신 행운사는 세심수도의 도량이며 중생의 오염된 심신을 세척, 해탈토록하는 귀의처이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마음과 정신을 묵조선으로 수련하여 견성성불의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법회에 꼭 참석 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일 시 : 불기 2556(2012)년 4월 28일(음,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행운사 도량 회 주 : 법공(덕룡) 011-781-0218 주 지 : 행천(수임) 010-9189-3346 총 무 : 지현 010-3055-0218 합창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행운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